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15호
2017. 12. 4
겨울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이종찬 편집인:홍성덕
TEL: 02)734-8851 ~2 FAX: 02)722-0251 <http://cafe.daum.net/hongbumdo>

홍범도장군 순국 74주기 추모식, 학술회의 성황리에 개최 이종찬 이사장, 국군의 날 변경을 강력하게 주장



학술회의 주제: 홍범도 장군 관련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평가

(사)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찬)에서는 홍범도장군 순국 74주기를 맞아 지난 10월 25일(수) 오후, 경복궁 경내에 있는 고궁박물관 별관강당에서 추모식과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종오 서울북부보훈지청장과 보훈단체 임원, 대한민국해군 홍범도함 승조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기념사업회 초청으로 방한한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감독 출신 리 올렉 공훈예술인도 참석했다.

이종찬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홍범도장군의 독립운동을 역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군의 날을 변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군의 날은 국군의 전통성과 직결됨으로 독립군의 역사를 국군의 연원으로 반영해야 홍범도 장군의 독립전쟁이 국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을 창설할 때 조소앙 외교부장은 경과보고를 통하여 “광복군은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날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하고, 의병과 독립군이 광복군의 뿌리”라고 강조했던 정신을 역사에 반영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윤종오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의 추모사와 김기혁 홍범도함 부함장의 추모편지 낭독이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학술회의의 주제는 “홍범도장군 관련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평가”로, 제1주제는 “역사소설 ‘홍범도’의 역사성”을 윤상원 전북대학교 교수가 발표하였다. 윤 교수는 “1989년 역사기록소설 ‘홍범도’가 한국에서 출판되었지만, 단순한 소설로 치부하여 역사학적 분석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다각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2주제는 “희곡 ‘홍범도’의 역사 수용과 인물 형상화 양상”으로 조규익 숭실대학교 교수가 발표하였다. 조 교수는 “희곡 ‘홍범도’는 실존했던 주인공의 강한 주문에 따라 철저한 사실성을 지향했지만 전설적인 영웅이자 호랑이를 잡던 백두산 포수라는 이미지를 군데군데 끼워 넣음으로써 흥미를 진작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제3주제는 “‘홍범도’를 매개로 한 체제 옹호의 서사”로 임형모 군산대학교 강사는 “김세일의 소설 ‘홍범도’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기반을 두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표방하여 미학적 형상화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체제 옹호를 위해 홍범도가 매개자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종합토론은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진행으로 장세운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최영근 카자흐스탄 공훈극작가, 신호승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 연구원 등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은 변경되어야 한다.



이 중 찬
(기념사업회 이사장)

홍범도 장군 순국74주기를 맞아, 전 생애를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장군님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운동정신을 조명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한다는 결의를 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지난 2005년,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를 창립되기 이전에는 홍범도장군께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평가는 너무 인색했고 오히려 공산주의자로 매도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매우 안타까웠었다.

1990년 공산권이 몰락하고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여 자유로운 상호 왕래가 되면서 극단적인 반공정책이 크게 완화되면서 균형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학계의 꾸준한 연구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원로들의 증언으로 이제 홍범도장군의 무장독립투쟁 업적이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저희 기념사업회 임원 일동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독립운동의 원로이시며 독립운동에 관한 가장 많은 연구와 저서를 남기신 전 광복회장 이강훈선생은 홍범도장군이 무장독립투쟁의 최고의 영웅이라고 증언하셨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홍범도장군과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적인 업적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식민사관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군의 역사를 미군정의 군사영어학교와 국방경비대에서 시작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시정부의 법과 전통을 계승했다는 것이다. 임시정부에는 분명히 군편제가 있었고 광복군이 창설되었었다.

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충칭(重慶)에서 창설되었다. 총사령관이 이청천 장군이였다. 또한 광복군 성립식에서 조소앙 외교부장은 “광복군은 1907년 대한제국국군이 해산된 날부터 시작했다.”고 선언하고,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광복군성립보고를 의결하여 공포하였다. 이는 광

복군은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날인 8월 1일부터 의병투쟁이 시작되었고, 의병이 독립군으로 발전했고, 독립군이 광복군이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복군사령부 이청천, 부사령관 겸 1지대장 김원봉, 2지대장 겸 참모장 이범석, 3지대장 김학규가 모두 독립군 출신이다.

헌법전문에 따라 합법적으로 임시정부의 군사제도와 광복군은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된 것이다. 만약 우리 국군이 조선경비대에서부터 시작했다면 미군정이 우리 국군을 창설한 것이며, 구성원이 대부분 일본군 출신임으로 국군은 일본군의 후예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선열들이 일제강점기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독립운동을 전개한 찬란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인하고 훼손되게 된다.

우리 국군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업은, 국군의 생일인 국군의 날을 현재의 10월 1일에서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다. 의병투쟁이 시작되었던 1907년 8월 1일이나, 광복군이 창립된 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무장독립운동사가 우리 국군의 역사로 계승될 것이며, 홍범도 장군의 무장독립투쟁이 역사적인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국군의 날은 국군의 생일이다. 10월 1일로 국군의 날을 정할 때, 일부 친일세력들이 독립투쟁을 부인하고, 양심상 국군 창설일을 국방경비대 창설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6·25한국전쟁 당시 38선을 통과했던 10월 1일로 정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분단 상태이지만, 멀리 않은 장래에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이 되었을 때 국군의 날이 민족상쟁과 관련된 날이라면 역사적 수치이며, 민족적인 망신이다.

북한은 조선인민군의 역사를 1932년 4월 25일 중국 안투(安圖)현에서 김일성이 조직한 항일유격대가 시작된 날에 창건되었다고 고쳤다. 조선인민군의 뿌리를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에 둬으로써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북한이 이어가고 있음을 선전하는 한편, 독립운동의 역사를 자기들이 계승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일부 친일세력의 입장을 고려하여, 국군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민족사의 반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홍범도장군의 추모일을 맞아, 장군의 영전에 독립운동의 역사를 복원하고, 국군의 날을 바로 잡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추모식, 학술회의 및 기념사업회 소식



〈발표 토론자〉



〈리 올렉 종합토론 발표 장면〉

홍범도장군 74주기 추모 학술회의의 종합토론 장면, 우측 사진 발표자가 리 올렉 공훈예술인



홍범도함 승조원 대표, 추모식 참석

홍범도장군 순국 74주기 추모식에 홍범도함 승조원을 대표하여 김기혁 부함장을 비롯하여 조지용 상사, 박용호 중사, 강문수 중사, 전철훈 중사 등이 참석했다.

추모식에서 김기혁 중령은 강정호 함장을 대신한 추모사에서 “홍범도함 승조원들은 장군의 삶과 업적을 거울삼아 국가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홍범도 장군께 추모의 예를 올린다.”고 말했다.

고려극장 감독

카자흐스탄 리 올렉 공훈예술인 초청

기념사업회에서는 74주기 추모식을 맞아,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과의 유대와 민족적 동질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려극장 감독을 역임한 리 올렉 공훈예술인을 초청했다.

리 올렉 감독은 “홍범도”연극을 4번이나 연출한 소감으로 “홍범도 연극은 고려인 사회의 민족적인 구심점이며, 장군의 영웅적인 의지와 겸손한 인간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고 회고하였다.



제천의병 창씨 122주년 의병제 체험박람회에 참가

제천시에서 주최하여 10월 19일 의병광장에서 개최한 의병 및 독립기념단체 체험박람회에 우리기념사업회 손광춘, 홍이표, 황원섭 이사과 문준진 사무총장이 참가하였다.

홍범도 장군은 1895년 제천 의병과 철원전투에 참전하여, 류인석 대장(자 여성(汝聖))으로부터 여천(汝千)이라는 호를 받아 형제의 결의를 맺었다.



〈홍범도장군 74주기 추모 학술회의〉

〈제1주제 : 소설 “홍범도”의 역사성〉- 윤상원(전북대 사학과)

소설 “홍범도”를 역사적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여, 분석해야



역사소설 『홍범도』는 1960년대 모스크바에 거주하던 고려인 작가 김세일이 집필하여 카자흐스탄의 『레닌기치』에 연재되었던 소설 『홍범도』가 1989년 한국에서 『역사기록소설 홍범도』로 출간되었다.

『홍범도』는 ‘조선의 저명한 빨치산 대장’ 홍범도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쓴 전기이다. 5권에 이르는 방대한 대화소설이니 만큼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당시의 평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설 『홍범도』에 대하여 홍범도의 동지였던 김승빈은 편견 없이 사실만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전제 아래, 홍범도는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분파투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소설에서는 자유시사변에서 이르쿠츠크파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했다.

강진구는 김세일의 『홍범도』가 고려인들의 자긍심을 일깨워주었다고 평가하고,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을 통해 고려인들 자신이 혁명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회주의 건설 과정의 당당한 일원임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역사복원은 그들을 ‘고려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는 중요한 구실

을 했다. 「홍범도」를 고려인들이 민족적 차별을 극복하고 살아 남은 자신들에 대한 헌사라고 본 것이다.

신정은은 「홍범도」가 격정적으로 현실을 살아온 홍범도를 통해 작품 안에 불안한 내면의식을 지속적으로 표출했다고 보고 있다. 작품 안에 윤리적 갈등이 제기되는 것은 허무주의의 발현이자, 긍정적인 사회적 인간의 부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세일은 홍범도라는 인물을 통해 기형적인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본질을 깊숙이 인식한다. 그러나 영웅주의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민중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작품이 지니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임형모는 「홍범도」를 한국문학사의 관점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다룬 ‘역사기록소설’이자 저항소설이라고 분석하고 고려인문학의 관점에서 경계인의 방황과 또 다른 고향 찾기의 여정으로 보는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이 저작이 소설이라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소설은 그냥 소설이 아니라 ‘역사기록’ 소설이다. 『홍범도』를 역사학의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지만, 이제 역사학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주제 : 희곡 “홍범도”의 평가〉- 조규익(숭실대 교수)

희곡 「홍범도」는 역사적 사실 치중, 인물 형상화에 한계



희곡 「홍범도」는 연해주 출신 극작가 태장춘(1911~1960)의 대표작이다. 생존해 있는 인물을 ‘영웅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관점에서 그려냈다는 점과, 일제 시대였던 당시 작가의 디아스포라 의식과 함께 당대 고려인 문단의 기대

지평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깊은 작품이다.

홍범도는 자신의 일생을 회고한 기록 「홍범도 일지」를 남겼으며, 그것이 연극 「홍범도」의 1차 자료였다. ‘함경도 지방에서의 의병 항쟁기’가 홍범도의 일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시기였는데, 희곡 「홍범도」는 그 부분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홍범도」의 액션은 네 개의 막(幕)과 네 개의 장(場)으로 세분되는 짜임을 보여주는데, ‘홍범도와 의병을 토벌하려는 일본군의 홍계와 조선인들의 반역적 행위’ [제1막], ‘홍범도를 제거하려는 일본군 음모의 실행과 삿발대군 순선의 협조 및 배신자 월향의 전향’ [제2막 1장], ‘홍범도와 의병을 잡겠다는 조선인 반역자들의 활동과 선량한 조선 백성의 희생 및 홍범도의 지략’ [제2막 2장], ‘일본군을 격멸하려는 홍범도의 지략과 배신자 우진에 의한 전향자 월향의 죽음’ [제3막 1장], ‘홍범도의 지략으로 일본군과 조선인 반역자들이 모두 체포되고 배신자 우진의 계략으로 조선인 반역자들

은 위기를 모면함’ [제3막 2장], ‘홍범도는 우진을 비롯한 조선인 배신자들을 일망타진한 뒤 밀려오는 일본군을 향해 나아갈 것을 주장’ [제4막]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희곡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그것들이 리얼리티를 지향한 미학적 구도와 치밀한 의도 아래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범도」는 희곡 미학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으나, 애국심이라는 메시지의 전달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론가들로부터 호평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홍범도」는 일반적인 희곡이나 연극의 관습적 성향을 벗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작품 자체가 실화극 내지는 역사극의 성격을 지니며, 둘째, 주변 인물들의 활약상을 부각시켜 달라는 홍범도의 주문에 따라 작가의 상상력을 최소화시키고, 사실성을 극대화시켰다.

셋째, ‘홍범도 잡기’와 ‘일본군 잡기’라는 상반되는 서사들을 작품의 두 축으로 ‘배신·기만·날조·염탐·사냥·함정·복수’ 등의 모티프를 설정함으로써 ‘민족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란 주제를 구현했고, 넷째, ‘전설적 영웅’이자 ‘호랑이 잡던 백두산 포수’라는 이미지를 넣음으로써 흥미를 유발시켰다.

이처럼 「홍범도」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연극미학의 모범적 선례로 볼 수 있다.

〈제3주제 : 소설 “홍범도”의 문학성〉-임형모(군산대 강사)

소설 『홍범도』는 체제 옹호의 서사로 정치소설



이-푸 투안(Yi-Fu Tuan)은 『공간과 장소』(1977)에서 “인간의 삶은 출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난다. 즉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이다”라는 말을 했다. 소설 〈홍범도〉를 고찰하는 마당에 이 말이 먼저 떠오른 것은 ‘미

래’로서 조국 광복을 상정해 놓고 이를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돌아올 수 없는 여행자’가 홍범도였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소설 〈홍범도〉는 홍범도와 의병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실제 항일무장투쟁의 과정을 다룬 영웅서사를 주플롯으로 하고 가상의 인물로 등장하는 박영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성장서사를 부차플롯으로 하는 역사소설이며, 일제에 항거하는 저항문학이자 독립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대가 만든 디아스포라 문학이기도 하다

덧붙이자면, 〈홍범도〉는 실록적 성격을 띤 정사적 성격의 작품으로서 민족의식에 기반을 두고 ‘민족사의 저항노선’을 계승하고 있는 민족적 우월성을 담은 영웅담이면서, 소비에트 주권사상을 일관되게 작품의 기조로 내세우는 과정에서 역사기록소설로서는 장르적 속성과 특질에 한계를 지닌 작품이자, 잃어버린 기억들을 복원해내고자 하는 집단적인 역사복원 욕망의 결과물이 내재한 작품이었다.

고려인의 입장에서 홍범도는 민족적 영웅이며 민족사적 인물이지만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된 측면이 있다. 고려인의 영웅에서 소비에트의 영웅으로까지 변모하여 철저하게 계산된 체제 옹호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작품 속에서 형상화되는 홍범도의 행위와 말은 홍범도를 민중 앞에 세워놓고 체제를 옹호하는 인물로 묘사하여, 작가의 서술 태도는 작품을 읽는 독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 소설에서는 홍범도를 완벽한 인간의 전형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의 능력은 “한 번 들은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비상한 청각적 기억력과 시각적 기억력”을 지녔으며 “강의한 의지, 대담한 성격, 너그러운 심정”을 소유한 절대적 존재로 묘사된다.

이렇게 전쟁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완벽한 인물이 홍범도로서 그는 항상 옳으며 그가 이끄는 부대는 너무도 도덕적이다. 그러나 의병을 비롯하여 민중들이 그를 따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완벽한 인간의 전형으로 묘사되는 데에는 체제 옹호의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홍범도를 주제로 영화나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과거를 추억하고 추모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현재로 귀환하는, 즉 ‘돌아올 수 있는 여행자’가 되도록 미래를 살아가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종합 토론〉- 반병률(한국외국어대학 교수)

홍범도장군 연구는 일취월장, 위상도 크게 향상



홍범도장군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홍범도기념사업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연구 성과는 일취월장했고, 홍범도장군의 업적과 위상도 크게 향상되었다. 홍범도 관련 자료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논의해야 될 대상은 “홍범도일지”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후속 연구가 진척

되지 않아 발표에서 제외된 점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오늘 발표에서처럼 홍범도장군 관련 자료나 작품은 사실적인 것과 문학적인 묘사가 상충되면서도 효과 면에서는 상호 보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홍 장군의 의병투쟁은 대부분 심산유곡에서 격전이 벌어져, 연구하려면 오지를 답사해야 되는데 아직도 원만하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군의 업적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대중적인 매체가 필요한데, 사업성을 고려하여 고민해야 될 것이다.

장세운 소장은 윤상원 교수의 소설 “홍범도”의 역사성에 대한 토론에서, 먼저 회고록 “홍범도 일지”에 대한 연구와 분석, 평가와 활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연변 김창걸의 소설 “수표”, “두 번째 고향”, “강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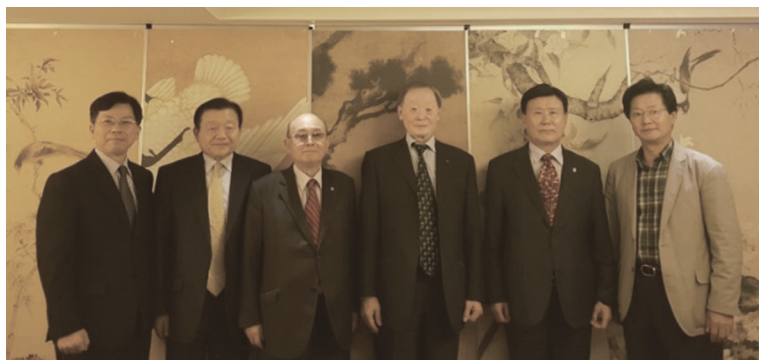
등 홍범도와 관련된 소설과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소설 “홍범도”는 중앙아시아에서는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한국이나 중국연변 등에 영향력이 없어 영화나 연극 등 대중적인 작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영근 카자흐스탄 공훈극작가는 조규익 교수의 회곡 “홍범도”에 대한 토론에서, 공산체제 하에서 억압된 사회 현상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작가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재평가했다. 또한 이제는 고려인 문단의 작품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학의 대상으로 수용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부연하였다.

신효승 연구원은 임형모 교수의 소설 “홍범도”는 “홍범도를 매개로 한 체제 옹호의 서사”라는 평가와 정치소설이라는 결론에 대하여, 체제옹호 측면도 있지만 역사적 토대를 바탕으로 실제 모습을 회복하려는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체제옹호를 주장한다면 논리상으로 볼 때, 이 소설이 레닌기치에 연제되던 1965년은 스탈린에 대한 제조명이 이뤄지던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옹호하는 내용이 장기간 연제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토론했다.

연극 「홍범도 장군」을 연출한 리 올렉 인터뷰



우리 기념사업회는 카자흐스탄 공훈배우이며 연출가인 리 올렉(LI Oleg, 75세)씨를 지난 10월 25일에 개최된 홍범도 장군 순국 74주년 추모식과 학술회의를 계기로 초청하였다. 카자흐스탄 동포 대표를 초청한 취지는 현지 동포들과 고국과의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고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초청 기간 동안 리 올렉 감독은 추모식과 학술회의에 참석한 일정외에도 홍성덕 부이사장을 비롯하여 김유진 고문, 김경호, 황원섭 이사, 문준진 총장 등 임원들과 24일 세종문화회관 한정식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날 오후 홍 부이사장이 직접 안내하여 광화문 일대와 경복궁, 청와대 사랑채 등지를 관광하였다. 또한 광화문 광장에 마련 된 고종황제의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龍袍)를 착용하는 체험행사에도 참석하였다.

다음은 리 올렉 감독과의 대담 내용이다.

고려극장은 어떤 극장인가?

고려극장은 올해로 창립84주년이 되는 고려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1933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립되어 소련 스탈린 정권의 정책에 따라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하면서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왔다.

고려극장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정신문화, 예술, 언어의 발원지로 고려인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고려극장의 오랜 역사 속에서 카자흐스탄 인민배우 5명, 8명의 공훈예술인, 19명의 공훈배우를 배출하여 “명예표식”을 받은 국립극장이 되었다. 1933년 문제준의 작품 ‘불타는 힘’을 연출한 이래 250편의 연극이 공연되었다. 고려극장의 운영비와 관리비는 전액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고려극장은 홍범도 장군과 어떤 관계인가?

홍 장군이 수위라는 직책은 맡았지만, 요즘처럼 경비 책임을 맡은 것은 아니다. 당시 고령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처지

라 급여를 드리기를 위한 명분으로 편의상 수위라고 했다. 당시 고려인 사회의 구심점으로, 고려인들이 많이 모이는 고려극장에서 동포들에게 독립운동과 민족정신을 계도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바로 고려극장에서 1942년 장군께서 직접 참관한 가운데 “홍범도” 연극을 초연한 장소이기도 한다.

리 올렉 감독은 고려극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고려극장에서 33년 동안 배우와 연출과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2년 연성용 극본인 ‘지옥의 종소리’를 첫 작품으로 공연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29개의 작품을 연출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한진의 ‘양반전’, 강경리에따의 ‘삶이여 안녕!’, ‘앵두는 가을에 피지 않는다’, ‘상속자들’, ‘삼국태자’, 최영근의 ‘아리랑’, 태장춘의 ‘홍범도’, 그리고 리 올렉 자신의 작품인 ‘심정의 기억’을 연출하기도 했다.

2013년 기념사업회 방문단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공연한 연극 “홍범도”의 연출도 맡았었다.

홍범도장군 74주기 및 학술회의 참여 소감은?

기념사업회에서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하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3세, 4세 동포들로 한국말도, 한글도 모르고, 역사도 이해하지 못하여 항상 민족적인 정통성의 보존문제로 고심해 왔다. 이번 행사 참석으로 용기를 얻었다. 학술회의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홍범도 장군은 고려인사회의 영웅이며, 중심이다. 이번 학술회의 주제가 되었던 홍범도를 소재로 한 소설이나 희곡은 고려인의 재산이다. 이런 작품을 청소년들이 읽도록 하여 민족의식을 선양하도록 하겠다.

내년에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홍범도장군 순국 75주기 추모행사를 계기로 연극 “홍범도장군”을 고려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이며,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국내외에 소개하려고 한다.

가족관계는 어떤가?

부인은 고려극장에서 같이 여배우로 활동했던 김 갈리나이며, 아들 리 쓰다 니슬라브(29세)와 자부는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오페라단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무장독립운동 장군열전 2

백마 탄 전설적인 항일 영웅, 김경천 장군



김경천(金擎天)장군은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인 1919년 국내 상황을 그의 일기 경천아일록(擎天兒日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北道 南道 西道, 서울... 자기들끼리도 당파가 있다. 아 아 이것이 대한(大韓)이 망한 이유가 아닌가”(1919년 9월)

“너무도 실제 방면에 노력하는 자가 적고 허명에 취한 자가 많다. 상해임시정부에 벼슬을 구하러 가는 것을 보아도 알고 거기 당사자들이 세력 다툼하는 것을 보아도 알며...너무도 자칭 영웅도 많다”(1921년 3월 1일)

망국의 원인을 지도자들의 분열과 세력다툼으로 진단하고 있어, 요즘의 정치상황을 진단한 듯하다.

김경천은 1888년 6월 5일 함경도 북청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김광서(金光瑞)이다. 8살 때 서울로 이주했고 15살에 경성학당을 졸업했다. 17살이 되던 1904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후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1911년 일본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제23기)하고 도쿄에서 기병 소위로 임관했다.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그는 소위 임관을 처음에 거부하여 말썽이 되었다. 결국 경성부로 소환되어 조선총독 테라우치 마사사케와 면담, 일본장교로 임관 받으라고 사정했다. 임관 권고를 받은 김경천은 아버지와 형의 죽음으로 가정 생계도 꾸려나가야 했고, “독립전쟁을 벌이려면 육사 졸업한 것 갖고는 안 된다. 일본군 장교 생활을 하여 일본 군사기밀을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그 권고를 받아들였다.

이후 기병 장교로 근무하였는데, 수년간 기회를 엿보다가 1919년 2·8독립 선언을 계기로 탈출을 결심하고 건강이 나쁘다는 구실로 귀국했다. 그해 6월 초 이청천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여 대한독립청년단(총재 안병찬)에 가입해 활동했고,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했었다.

후에 김경천은 신파군, 이청천과 함께 “하늘 천(天)”자를

넣어 지은 김경천(金擎天, 金應天)을 별명으로, 만주의 3천으로 널리 알려졌다.

1919년 말경에 김경천은 만주 삼원포를 떠나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의용군을 모집하여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중국인 마적단과 싸웠으며, 창해청년단(단장 김규면) 총사령관으로서 전투를 거듭하면서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21년에는 수청의병대의 지도자가 되었고, 러시아의 혁명 세력과 연합하면서 연해주 지역의 조선인 지도자로 소련의 인정도 받게 되었다.

1922년 수청의병대는 대한혁명단으로 개칭하였으며, 김경천은 사령관을 맡았다. 그해 말에는 고려혁명군(사령관 김규식)이 조직되었고 김경천은 동부사령관을 맡았다. 그러나 이후 정세 변화로 러시아 지역에서의 독립 운동이 소강상태에 빠지면서, 노령 무장 독립운동의 선도자 격이던 그의 입지는 좁아졌다. 1923년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개편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될 때, 군사담당 위원으로 내정되었다. 김경천은 상해 국민대표회의에도 참석했다. 1923년 이후로는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고려사범대학에서 강의했고, 국경경비대의 장교로 일했다는 정도만이 알려져 있다.

러시아 내전이 끝난 뒤에는 한국의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 계획이 좌절되고 1937년 스탈린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정책에 반대하다 체포되어, 1939년에 잠시 석방되었다가 다시 체포되어 간첩죄로 8년형을 언도받고, 북부 시베리아 수용소로 옮겨져 복역하다가 1942년 해방을 보지 못하고 54세를 일기로 순국하였다.

일본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한 보장된 앞길을 버리고 홀연히 망명한 뒤 시베리아 일대에서 “김 장군”으로 불리며 유명해진 그는, 흰 말을 타고 만주와 시베리아를 누비는 전설적인 항일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 북한 김일성은 김경천장군의 김일성이라는 가명과 항일 투쟁 업적, 전설적인 이미지 등을 도용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경천 장군은 1998년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어 대통령장을 포상받았다.

한편 2015년 우당장학회(이사장 이종찬)에서는 김경천 장군의 독립운동을 기리고자, 그가 살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집터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표지석을 세웠고, 종친인 김유진 고문(전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김경천장군기념사업회를 창립했다.

(정리: 홍성덕 부이사장)

…임원동정…

○이종찬 이사장



11월 17일 개최된 우당 이회영선생 85주기 추모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당장학회 이사장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3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석홍 국민대학교 교수에게 독립운동사 연구지원비를 지급하였다.

○홍성덕 부이사장



11월 7일 NBC-1TV 방송에서 방송위원으로 추대되었다. 부이사장은 주 독일대사관 공사와 인도네시아 공사를 역임한 외교관 출신으로, 앞으로 방송 보도과정에서 외교와 안보문제에 대한 자문과 해설을 맡게 된다.

○김유진 고문



4·19혁명유공자회 상임이사는 11월 21일 유네스코회관에서 개최한 임원 및 지도위원 합동 모임을 개최하고, 현재 유네스코에서 심의 중인 4·19혁명 자료 문화유산 등재 문제를 보고했다. 10월 5일에는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에서 대한민국순국선열숭모회와 함께 광복군 무후선열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우재 고문



(사)매한윤봉길월진회 이사장은 12월 22일 오후 7시, 예산문화회관에서 월진회 회원을 대상으로 윤봉길 의사의 애국운동과 관련하여 “시 낭송회”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월진회의 금년 사업을 총결산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박형상 감사



한성도성마을공동체 고문변호사는 “한양도성” 소식지 10월호에 남산 석호정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 한양도성 소식지는 서울특별시 산하 한양도성 행복플러스 운영위원회에서 한양도성 인근마을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하고 있다.

○홍헌일 감사



(사)서서울향토문화연구원은 11월 18일 서울시 무악재 녹지연결로 명칭공모 회의에 참석하여 명칭공모 분석안을 발표했다. 무악재 연결로는 서대문구 현저동과 종로구 무악동을 연결하는 연장 80m, 폭 11m, 높이 22m로 서울시에서 60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개통 예정이다.

○이미자 이사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은 10월 20일 제271차 임시회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했고, 11월 22일 제272차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건설복지위원회 행정감사를 주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 등을 심의했다.

○이영철 이사



도봉문화원장은 10월 5일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에서 대한민국순국선열숭모회에서 주최하여 개최된 2017년 광복군무후선열 추석 추도식에 참석하여 추모사를 했다. 이 행사는 3·1정신 선양회와 4·19혁명 공로자회, 재경독도향우회에서 후원하였다.

○홍성종 이사



남양홍씨남양군과대종중회 회장은 시제 철을 맞아 11월 12일에는 충북 청원군, 11월 20일에는 경남 진주시, 11월 23일에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남양홍씨남양군과 추계 시향을 봉행하였다.

○홍이표 이사



“애국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소비자 모임”(애지모) 회장은 11월 17일 우당이회영선생 추모식과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으로부터 장학금 모금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10월 21일에는 서울교대강당에서 애지모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0월 29일에는 회원 80명과 함께 춘천 국제마라톤에 참여하였다.

○황원섭 이사



(사)우당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11월 2일 인터넷 TV방송, 티브로드 7시 뉴스에 출연하여, 탄생 150주년, 순국 85주년을 맞은 우당 이회영선생의 독립운동 정신에 관해서 대담하였다. 이 방송에서는 우당선생은 목숨과 재산, 가족까지도 모두 독립운동에 바친 민족사의 가장 소중한 교훈으로, 선생의 “지도자의 정신”을 계승하자고 호소했다.

○김진중 자문위원



서대문문인협회 회장은 지난 9월30일 서대문 독립공원에 있는 독립관에서 제2회 독립문청소년백일장대회를 개최하고 초등, 중등, 대학, 일반인으로 나누어, 운문과 산문을 심사하여 총 64명의 학생 문사를 탄생시켰다. 11월 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아태문협 회원들과 대마도 역사탐방 여행을 다녀왔다.

○문준진 사무총장



평창동계올림픽 범국민코리안서포터즈 지역관리위원장은 11월 1일 오후5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을 위한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KBS TV에서 생방송하고, 인기 가수들이 출연한 노래공연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